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삼위일체 대축일]

2009년 6월 6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장기철 스테파노, 신정혜 세레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독서: 김정윤 루시아, 이정욱 리오바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봉헌금: \$ 138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교무금: \$ 1090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바자회: \$ 130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사목위원	합 계: \$ 1358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6월 19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6월 12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오늘의 묵상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께서 한 분 하느님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위격은 인격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인격이 산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위격은 영혼에 응용하는 한자 말입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합니다. 막연함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느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덮어 두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을 완벽하게 아는 자녀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다 혼인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깨치게 됩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못이 많은데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통해 그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깨달음에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이론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 모습'을 표현한 용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묵상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일치로 계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의 교훈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4,32-34.39-40 <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제2독서> 로마서 8,14-17 <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앞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 142(1-4 절) 봉헌: 145 성체: 147 파견: 142(5-7 절)

†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예전에는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까다로운 교리문답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골 공소를 방문한 신부님이 예비자 할머니에게 교리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하느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분이신 하느님은 몇 개의 위격입니까?” 한참 생각한 할머니는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개의 위격입니다.” 어이없어하는 신부님에게 할머니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성당에 갔었는데 그 때 벽에 걸려있는 하느님 그림을 봤거든요. 거기에 긴 흰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성부)가 젊은 청년 예수님(성자)을 안고 있고 가운데 비둘기 모습(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성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이를 먹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 본 그 할아버지가 여태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신학교 때 교수 신부님께 들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고, 세 위격이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위격(persona)은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맡았던 역할의 가면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 한 명의 배우가 여러 개의 다른 가면을 쓰고 여러 역할을 맡아 공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배우에게 여러 개의 가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체(substance)란 말은 본성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럿이 서 있게 하는 바탕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배우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세 가지 다른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라는 무대에는 하느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무대에서 각자 고유한 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역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를 우리의 삶에서 본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일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결코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랑하려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하느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교리는 온전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 계시의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대로 신비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인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신비에 “나는 믿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 성당 여름 캠프가 6/20 (토)~6/21(일) 이틀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매디슨 북쪽의 Pine Lake United Methodist Camp 입니다 (<http://www.wisconsinumc.org/PineLake/index.html>). 작은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캠프 사이트입니다. 캠프 참가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캠프측과 연락중), 어른 \$50, 18세 이하 청소년 (초, 중, 고등학생)은 \$30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목회장이나 행사 담당 사목위원 (강희만, 양지웅)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성당 공지사항에 답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사목회장: jkhong2350@yahoo.com) 되겠습니다. 미리 여름 일정을 확인하셔서 많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 6월 정기 사목회의가 오늘 미사후 본당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여름 캠프 입니다.

† <영성의 향기>

✧ 성령 안에서의 우리

하느님의 생생하고 활발한 영이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면 하느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형제 또는 자매가 되어 새롭고도 풍부한 내면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고 선하고 참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건설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정신과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지요.

✧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기억을, 어떤 사람은 서러웠던 기억을,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를, 어떤 사람은 소중한 무엇인가를 간직하는 것 같습니다. 사노라면 이런 마음의 씨앗들이 머리를 쭉쭉 내뻛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랑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슬픔과 기쁨 중 어느 것을 마음에서 꺼내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